남과 여, 부활 전 프로그램

(마가복음 12:18~27)

18.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19.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20.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21.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22.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23.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2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25.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26.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27.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남과 여, 부활 전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남과 여, 부활 전 프로그램'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 중에 프로그램(progra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17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한 라틴어로써 "미리 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회에서 진행될 순서를 미리 작성해둔 것이 프로그램입니다. 또 음악회에서 연주될 곡목을 순서대로 미리 짜둔 것도 프로그램입니다.
또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는 라디오와 TV가 상용화되면서 방송목록이나 편성표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게 되었고, 요새는 방송되는 내용자체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쇼나 오락 방송은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그램이라 부르고, 요즘 하는 SKY캐슬 같은 연속극은 드라마 프로그램이라고도 합니다. 뉴스나 토론 같은 시사 프로그램도 있고 다큐멘터

리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한편 프로그램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로 프로젝트(project)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두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계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두 단어가 많이 혼용되고 있고 정확한 의미를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법이 확연히 다른 예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국토개발이라는 말에는 프로그램보다 프로젝트란 말이 어울립니다. 반대로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하는 뮤지컬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보다는 프로그램이 어울립니다. 공연을 만드는 스텝들이 계획을 짜면서 프로젝트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관객 시점에서 계획대로 실행되는 공연은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예로부터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TV나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방송되거나 공연을 마치고 나면 없어집니다. 교회에도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마쳐진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는 것들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워진 경부고속도로, 영일만 산업단지조성,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등은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남아 존속하게 됩니다.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모든 차이를 찾아서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개괄적으로 보자면 사라지느냐 지속되느냐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의하면 남자나 여자로 태어나는 것부터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프로그램입니다. 오래 지속될 사안이 아니라 공연이나 TV방송처럼 한 차례 방영되면 사라질 프로그램과 같은 것입니다.
남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나라는 인격이 본래 남자인 것은 아닙니다. 남자라는 프로그램에 나의 인격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라면 나의 인격이 여자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녀의 역할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에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는 등의 또 다른 확장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TV방송이나 공연의 프로그램과 닮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차례 진행되고 끝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떼어낼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배우자나 부모자식관계조차 결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세상은 공연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떠한 의도로 계획되었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부활로 인한 논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절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의 세 종파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솔로몬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을 직계 조상으로 하여 세습적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과는 구분된 귀족계층이었고 매우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성향의 집단이었습니다. 산헤드린공회의 회원자리는 물론이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비롯한 주요 직분을 거의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종교적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익추구의 성격이 더 강한 집단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들이 존재했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친로마파 집단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매국노의 대표격으로 취급 받던 자들로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로마정부에 종노릇 하는 자들로써 백성들에게서 과도한 세금을 걷어 자기의 이윤을 착복하는 자들이었기에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편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협약을 맺고 유대인들의 통솔을 약속하며 기득권과 특권을 보장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계약 아래에서 로마 식민지하의 유대사회를 이끌어 가던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으로는 모세오경만을 경전으로 인정하며 부활과 내세와 천사에 대해서는 전혀 교리로 인정하지 않는 부류였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과 대립하던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으로 부활과 내세와 천사 등을 인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유대사회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교리적으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흐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두개파도 아니고 바리새파도 아닌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이때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거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닌데도 부활을 믿는다고 하니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논쟁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뒤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26~27절을 살펴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가지신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활과는 다르다는 점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셨던 사건을 생각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활의 모습입니다. 나인 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공동묘지로 가는 중에 예

수님을 만나서 살아나게 되었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부활은 이렇게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되살아났지만 결국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물학적이나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단되는 상태에서 육체의 되살아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부활은 보다 근원적인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자가 부활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27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로 여기는 것이 이미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사람들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죽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이들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과 자기의 기업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4000년 전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이미 아브라함이 죽은지는 5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에게 아브라함을 지금 살아있는 존재로써 언급하시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편한 말로 고치자면 "너는 지금 아브라함이 죽은 줄로 알지만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이삭과 야곱도 여전히 살아서 나를 자기의 하나님과 자기의 기업으로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신 셈입니다.

이미 죽은 아브라함은 더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도 당연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여전히 살아있는 자로써 보시고 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와 외할머니께서 그렇게 살아계시고 제가 장례를 치렀던 많은 성도님들도 하나님 곁에서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소유하고 자신들의 몫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부활의 진정한 의미와 우리가 가진 오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전히 살아있는 자에게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 부

활입니다. 물론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죽은 사람이 되살아남을 의미하기에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단어 자체의 의미가 무색해집니다. 그렇기에 부활이라는 말의 표면적인 의미만을 생각했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부활이란 내 인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육체를 벗고 신령한 몸으로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몸을 바꾸어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는다고 말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상에 사로잡혀 있던 내가 죽고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나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나라는 인격체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생각해보면 부활에 대한 이해도 쉬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44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또 49절에서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라고 하였고 51~52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죽은 것으로 생각해서 땅에 묻힌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며, 살아있는 우리도 육신의 몸을 벗을 때에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썩을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을 때까지의 사이를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굳이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여전히 살아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오래전에 죽은 것으로 여겨지는 자들이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과의 연합의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보자면 사람이 인격체로서 입을 옷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흙에 속한 형상이 있고, 천국에 속한 형상이 있고 지옥에 속한 형상이 있습니다. 어떠한 형상이든지 나라는 인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 때에나 천국 혹은 지옥에서 살게 될 때에 여전히 나의 인격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끝이라는 의미에서의 죽음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에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하나님의 삼위일체 관계에 참여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일체 됨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우리가 참여하여 사위일체를 이루는 것이 생명입니다. 결코 육체의 죽음이나 되살아남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여 지옥에 간다면 그것이야 말로 생명을 잃는 것이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과 가족들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진정한 의미에서 죽지 않습니다. 천국에 참여하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느냐, 지옥에 참여하는 몸을 입게 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끝이라는 의미의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육체의 숨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들은 육체를 벗고 시간과 공간 바깥에 머물게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4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1초도 흐르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로써는 그러한 세계를 상상할 수도 없고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격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살아있다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다 먼저 죽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다가 죽었어도 여전히 살아있지만 다만 장소가 지옥일 것입니다. 이처럼 옷을 갈아입는 것일 뿐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거울 앞에 서면 58년생의 머리가 하얗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이는 모습은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아니라 저의 인격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일컬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한 이러한 육신의 상태를 지목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몸은 분명히 죽어서 땅에 묻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를 벗은 인격을 가리키고 계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미남미녀의 대표로 꼽히는 장동건 씨나 고소영 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육체의 모습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탄복하는 조각 같은 아름다운 외모를 기준으로 그들을 대하시지 않고 그 육체를 벗은 인격 자체만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부활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사두개인들의 오해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부활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논쟁을 벌일 때에 상대의 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논리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과 논쟁 할 때마다 사용한 무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 계대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계대결혼이란 결혼한 형이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받아들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첫째 아들은 죽은 형의 아들로 입적되어 대를 이어가게 되고 둘째부터는 자신의 자녀로 입적이 됩니다. 이는 가문의 대가 끊어져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가나안 땅의 기업이 다른 가문의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방지하고, 과부가 된 형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계대결혼에 근거한 논리를 통해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부정하려고 하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일곱 형제가 차례대로 한 여자와 결혼하고 자식이 없이 죽게 됩니다. 이런 일은 계대결혼 제도가 있는 유대사회에서조차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로써 논리적으로만 가능한 가정이었습니다.

애초에 계대결혼 제도가 존재하지도 않는 한국문화에서는 인간성을 말살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여겨지기에 더욱 와 닿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다만 당시에는 계대결혼으로 지정된 모세의 율법으로써 부활을 반대하든 찬성하든 이론의 여지를 달 수 없는 정당한 제도였습니다. 그렇기에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라는 미명하에 단지 싸움을 위한 논리를 전개했던 것입니다.

이런 논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부활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과는 다른 현세적 삶의 연장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갖는 욕망은 다양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외모가 출중했으면 좋겠다는 등 바리새인들은 이런 바람이 총망라 된 내세에서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세속적이었기에 계대결혼에 근거된 사두개인들의 반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현세에서 이상적으로 여기는 삶이 내세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기를 바라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은 계대결혼에 대한 논리를 전가의 보도(傳家之寶)처럼 사용했던 것입니다.

앞서 부활에 대한 의미를 살펴본 것에 비추어 계대결혼 제도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문의 기업이 다른 가문의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방지하거나 과부가 된 형수를 보호한다는 것은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적 차원으로 오면 문제는 전혀 달라집니다.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이기도 하며 기호차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형이 좋아서 결혼한 여자를 동생이 진심으로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동생이 결혼하기를 원하던 여인이 따로 있었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형수 된 입장에서도 남편의 동생을 새 남편으로 쉽사리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야곱의 결혼에 대한 일화를 통해서도 인간의 감정 문제가 결코 제도적인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임을 잘 드러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으나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7년을 일한 후에 레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라헬을 사랑하였고 또 7년을 더 일하고서야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로 든 예화에서도

형이 결혼할 때에 자기가 죽을 경우를 생각하여 동생들이 좋아할 만한 여자를 고려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굳이 이러한 계대결혼을 율법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공백을 가진 인격체로 지음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마음이 채워질 때에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본래 기쁨과 만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산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채우시면서 일체되심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며 사람이 이 삼위일체의 관계에 참여함으로써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지음 받은 첫 사람 아담은 하와가 없을 때에도 이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도 아담이 부족함을 느껴서 하와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하와 또한 아담과 동일한 인격체로써 지음 받은 것입니다.

이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계대결혼이라는 일견 인간성을 무시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인간성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결혼이라는 행위 자체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만족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논리에 의하면 부활한 일곱 형제와 한 여자의 남편이 누군지를 놓고 곤란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해주신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고려해보면 애초에 이런 상황은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활한 후에는 남자나 여자라는 역할을 벗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하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나를 남자나 여자로 규정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입고 있었던 육체입니다. 그러나 삶은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도 지속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라는 공연장에서 남자나 여자의 역할로 공연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부활하여 육체라는 옷을 벗은 후에는 남성도 여성도 아니기에 성 차별이라든지 성 차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한 동안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고 나면 미투는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이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그에 기반을 둔 확장 프로그램이었을 뿐입니다. 부활 후에 자녀를 찾아본다한들 그들은 더 이상 자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른 살이나 차이 나던 아들과 딸이 이제는 동등

한 영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없으니 아들도 없고 딸도 없습니다. 천국에 간다면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을 가지는 동등한 인격체일 뿐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라는 큰 나무에 달린 나뭇잎과 같습니다. 나뭇잎으로서는 동등하지만 모두 개별적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사람을 외모로 구분할 수밖에 없기에 못 생긴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잘 생긴 것이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여 천국에 간다면 신령한 인격 자체를 마주할 것이기에 못 생긴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모습에 지겨워 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남자나 여자라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하셨고, 또 그로부터 생겨나는 부부나 부모로써의 확장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하신 것일까요?
계대결혼을 지시하심에 있어서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은 창조주로써 인간에 대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의 마음을 공백으로 만드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기쁨과 만족은 결혼을 비롯한 육체를 통해 맺는 관계나 세상의 가치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설교에서 인간의 마음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운데 인간의 마음이 있고 한 편에는 하나님과 천국이 있고 다른 한 편에는 육체와 육체로 접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마음은 두 세계 중에서 어느 한편을 향함을 통해 채워지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체의 삶은 공연장이 됩니다. 프로그램이 공연되고 방송되고 있는 공연장 같고 TV와 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로서 혹은 부모나 자녀로써 연기해야 되는 내용은 바로 천국으로 말미암아 얻은 기쁨과 만족에 대한 것입니다. 삶이라는 무대에서 천국 기운을 연주하고 공연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천국의 노래를 부르고, 천국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천국에서 받은 단어로 대화함을 통해서 천국의 기운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공연장입니다. 내가 공연할 때에 나의 공연을 볼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라는 프로그램을 주셨다면 여자를 만나 천국의 기운을 뿜어내고, 또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에게 천국의 기운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의 프로그램을 받았다면 부모에게 천국의 기운을 뿜어내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통해 삶을 살게 하신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삶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자나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남자나 여자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공연을 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여러 프로그램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 프로그램이 끝났다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육체를 입고 참석했던 프로그램을 수행했다면 끝났다고 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하늘 기운을 받아서 하늘 기운을 뿜어내는 공연입니다.
배우들이 맡은 바 배역을 잘 수행하여 공연을 마치면 관람객들이 박수를 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천국의 천사들은 우리가 부여받은 프로그램대로 삶에서 하늘의 기운을 뿜어내는 역할을 잘 수행할 때에 박수를 칠 것입니다.
배우자가 무엇인가 불평을 하는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배우자를 향해 천국 기운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이유는 그것을 인격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 기운을 발산하는 공연을 수행해나갈 뿐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그렇게 천국 기운을 연주하고 발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여기고 감탄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경상남도의 시골에 살고 계시는 목사님 부부가 방문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선남선녀로서 표정이 말 그대로 선하고 유하셨습니다. 또 그 마음에는 복음적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생겨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분들의 선한 외모에서 부부싸움의 모습조차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만, 십자가 생활화를 하시기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 싸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십자가 생활화를 시작하시면서부터 부부간의 잦은 갈등과 다툼과 불화가 한 번에 해결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자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랑을 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예쁘다고 하면 아내가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제가 아내를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천국으로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남자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서로 나이 들어가는 육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인격을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공부 못해서 항상 답답했던 자녀들이 귀하고 감사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옵니다. 천국으로 기뻐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천국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를 이용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자녀의 인격 자체를 소중히 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국에는 결혼이 없지만 가족이라는 의미에 국한시켜서 말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은 여러분의 배우자나 몸을 통해 낳은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라는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내용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진짜 가족은 육체적으로는 관계가 없으나 하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함께 천국을 공연하며 살아가는 이들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생겨난 육체 친화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삶이 일시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마음을 투자하려 합니다. 말이나 지식 혹은 논리를 통해서 세상이 일시적이라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할지라도 당장 마음이 투입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마음은 세상을 영원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에 영원한 의미를 부여하려 하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원죄로부터 생겨난 육체 친화적인 기질은 삶이라는 일시적인 프로그램으로부터 마음의 기쁨을 회득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육체 친화적인 기질은 배우자를 대할 때에도 드러납니다. 배우자 본래의 인격 대신 육체라는 옷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천국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육체의 옷을 입은 배우자로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배우자는 내 마음을 채우는 용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에게 계대결혼을 지시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공연장의 무대 위에서 만나는 대상들입니다. 일시적인 프로그램에 결코 영원의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육체 친화적인 기질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마음은 죽지 않습니다. 문제는 육체의 몸을 벗었을 때에 천국 친화적인 옷을 입을 것이냐 지옥 친화적인 옷을 입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천국 친화적인 옷을 입는 자들은 삶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에 충실하게 임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을 영원한 세계인 천국으로 가득 채워서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천국을 공연하는 자들이 바로 천국 친화적인 옷을 입을 자들입니다. 삶이라는 프로그램이 끝나면 천국에서의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영원히 지속 될 신령한 몸을 입고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엄격히 말해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체에서의 프로그램이 끝날 뿐입니다. 남자나 여자로 태어난 것도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프로그램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 천국 기운을 발산하는 공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상대가 내게 무엇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참석자로써 천국을 어떻게 공연하느냐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아내를 만나게 된다면 육신으로 보던 모습이 아닌 인격 자체로 만나며 깜짝 놀랄 것입니다. 또 아내도 저를 만날 때에 머리 빠진 60대가 아닌 신령한 몸을 입은 인격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인격체였다는 것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멋진 인격체입니다. 다만 원죄에서 비롯된 육체 친화적 기질은 우리를 죄에 물들게 합니다. 육체로 접하는 세상을 통해 마음에 기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이러한 기질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목숨이 끝날 때까지는 육체 친화적 기질은 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가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통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하는 기질을 죽여 나가고, 세상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는 나를 죽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프로그램 참여자입니다. 나의 배우자도 프로그램 참여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에게 천국을 공연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해야 할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하는 일은 공부 좀 하라고 잔소리하거나 어느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고 압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앞에서 천국을 공연하는 프로그램 참석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부모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삶의 모든 순간에 천국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천국 연주자로써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 생활화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천국 대신 세상을 통해 마음의 기쁨을 얻으려는 기질은 아침에 죽여도 점심에는 살아나고 점심에 죽여도 저녁이면 또 살아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항상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죄의 기질을 이기고 하나님의 프로그램 참석자로써 말마다 행동마다 천국 기운을 내뿜는 천국 공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죽지 않는 피조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하늘로 채워진 천국 공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